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4월 3일(금)
..(음력 3월 11일)..

Пятница
3 апреля 2020г.
№ 13(116880)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가 확산된 가운데 사할린주에서도 주민들이 마스크를 차고 다니기 시작했다. 지난주에만 해도 거의 보지 못한 모습이었다.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3일 만에 21명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 발각

경찰, 러시아 소비자보호감독청 전문가 및 사할린주 보건부 직원이 자가격리의 명령을 받은 주민들을 체크하고 있다. 이 작업은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러시아 소비자보호 감독청이 밝힌 지침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체류했던 주민들은 엄격히 서류에 기재된 주소지에 머물며 2주간 주거지를 벗어나면 안 된다.

조만간 비상사태, 강화된 경계조치 시행 기간에 위반자에게 강화된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 지침과 금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1만5천 루블리에서 4만 루블리까지 벌금형이 주어지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면 과징금은 최대 15만 루블리, 법인 대상으로는 최대 50만 루블리가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격리 지침의 위반에 대해서는 100만 루블리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3년 이하의 금고형이 내려지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거나 집단감염이 되면 벌금 200만 루블리 혹은 징역 7년 이하가 선고된다.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가짜 뉴스(페이크) 배포는 30만-70만 루블리의 벌금과 징역 3년에 처한다.

4월 1일, 한국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 시작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가 4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4월 1일 보도에 의하면 투표는 전 세계 66개국 96개 투표소에서 4월 6일까지 실시된다고 알려졌다. 투표 실시지역의 재외선거인은 86,04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1,959명의 50.0%에 해당한다고 전해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 공관에서 취소되었으며 이르쿠츠크총영사관은 투표 업무는 공식 중지되었다. 4월 3일부터 투표를 시작해야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의 상황은 사할린 현지 시간 19시에 아직 불투명하다. 공관은 선관위의 공식통보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다.

4월 1일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 버스이용권 중지

4월 1일부터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및 교외에서 학생 버스 무료 이용권이 일시 중지된다.

이러한 결정은 비상조치 기간 학생들이 자가격리에 대한 권고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런 활동 제한은 해제 조치가 있기까지 지속된다.

사할린주, 자가격리 조치에 합류

사할린주는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에 따라 3월31일부터 4월5일까지 사할린 전역에 이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명령에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가 서명하고 문서를 주내 모든 집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주지사의 령에 따라 전 사할린 주민들이 자발적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 외출은 의료기관의 도움 필요 시, 인근 상점 방문, 반려견 산책, 쓰레기 처리할 때 집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능하다.

예외의 경우는 일을 지속해야 하는 직장인, 단체, 사할이 걸린 업체들의 직원들로 정부 관련 기관, 법보호기관, 의료기관, 약국, 상점 등으로 제한한다.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에 위험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흐지부지한 대책은 있을 수 없다. 경력한 통제만이 이런 상황을 조절하도록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일정의 불편을 초래하고, 계획과 생활방식도 바꾸고 있다. 그러나 감염병을 막고 우리의 이웃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조치다."라고 주지사는 설명했다.

65세 이상의 기저 질환을 가진 고령층에게는 더욱 위험하다. 이들에게 식품,약품, 심리적 지원, 다른 문의를 위해 사회복지사와 자원봉사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회복지부 핫라인 연결은 전화8-800-201-00-99로 하면 된다.

집 밖으로 나갈 경우 사람 간 거리는 1.5미터 정도 두어야 한다. 자가격리 조치는 사할린주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주 정부 홍보실이 밝혔다.

지난 주말에 사할린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명에서 1명 더 추가된 5명이 되었다.

2명의 사할린 주민이 멕시코와 쿠바에서 모스크바의 항공편을 이용해 사할린에 도착해 가족 2명에게도 감염시켰다. 4월 1일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이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병동에서 머물고 있는데 오랫동안 감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

어 노워시비르스크 <엑토르> 연구소의 양성 판정 결과를 재확인 중에 있다.

사할린의 의료기관들은 신종 감염병 확산과 투쟁을 준비 중에 있다.

3월 27일부터 3월 30일 까지 항공을 이용하여 외국(태국, 일본, 한국 등)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들(500여명)은 특별히 준비한 격리시설에서 며칠 머물다가 모두가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로 들어갔다.

사할린에서는 주말부터 국내 항공노선 승객들을 자가격리 시키고 진단 테스트를 실시했으며 환자와 접촉한 친지와 주변인들도 의심 대상이 되고 있다.

환자를 위해 확보된 병상은 돌린스크의 감염병원,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안쿠지노브 시병원, 그리고 어린 환자들을 돌볼 준비를 하고 있는 주 아동병원 있으며, 의심증상 관찰을 위한 병동은 <시네고르스크 미네랄너 워디> 휴양소, 주 피부 및 성병 진료소, <유빌레이너> 야영, <유너 켈레즈노도로즈니크> 야영소, <스포츠치브나야>호텔, <올림피아 파크> 등이 이용된다. 이런 작업은 위험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안전책을 지키며 진행하고 있다.

사할린주에서는 매일 600명에게 코로나19 진단 키트로 검진하고 있는데 주지사의 권고로 2500명 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추가 연구실을 개설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할린으로 오는 16만 개의 진단키트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사할린에 오는 모든 승객들은 진단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이들의 가족, 폐렴 및 감기 증상자도 검사하게 된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선 65세 이상 고령자, 판매인, 배달원, 항공 및 항만 승무원, 경찰, 자원봉사자, 순찰 관려자 등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을 진단하도록 했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사할린한인들의 현재 언어교육, 민족교육을 연구하려고

일본 치바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와타나베 카오리 사할린은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곳이다

일본 치바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와타나베 카오리(32세)가 교환프로그램으로 사할린을 다녀갔다. 사할린국립대와 치바대학교가 맺은 자매결연으로 그는 사할린에서 3개월 러시아어 교육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기간을 다 못 채우고 2개월 정도 있다가 3월 중순에 일찍 귀국하게 되었다.

유창하게 한국어를 하는 와타나베 카오리는 사할린한인들의 연구에 나서 한인동포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중학교 때 부모님들과 함께 한국을 처음으로 다녀간 카오리는 재미를 느끼고 나라와 언어에 대해 많은 호기심을 가져 고등학교 1학년때부터 한국어를 학원에서 3년간 배우다가 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 경희대학교 정치외교과에 입학했다. 그는 한국, 중국 등 일본 주변 나라들에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후 북한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서 서울에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밟았다. 잠깐 한국에 근무한 적도 있었고 2016년에 일본으로 돌아와서 재일동포와 아이누족을 연구하기 위해 치바대학교 대학원으로 들어갔다.

알고 재외한인들의 역사와 삶이 궁금해졌다고 한다. 일본에 사는 조선인, 한인들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이 당연했고 훗카이도 출신이 보다니까 아이누에 대한 관심도 우연은 아니었다. 재일동포 연구로 와타나베 씨는 조선 민족학교도 구경하고, 여러 행사도 가보았다.

사할린에 유학할 기회가 생겨서 카오리 씨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사할린으로 가기로 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재외 한인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교수님이 사할린 한인 연구를 추천한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할린이 와타나베 카오리에게는 특별한 곳이기

때문이다. 외조부가 여기에서 태어난 곳이고 증조부의 뼈가 묻힌 곳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으로 사할린을 떠난 외할아버지는 생전에 사할린을 그리워했고 증조할아버지의 유골을 찾고 싶어했다. 소련시대 때는 절차도 복잡했고 비자 허가도 잘 나오지 않아 이 소원을 이루지 못했다. 카오리 씨 가족에서는 증조할아버지, 외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잘 간직하고 있다. 가라후토 시대 때 사할린에서 연을 맺게 된 증조부모에게는 자녀가 많았다. 철도 방면에서 일을 했던 증조할아버지는 자식을 먹여살리기 위해 좀 더 돈벌이가 되는 탄광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탄광에 사고가 나서 사망하게 되었다. 귀국할 때 증조할아버지의 유골을 가져가지 못하는 게 가족에게는 늘 아픈 상처였다고 한다.

그래서 카오리 씨는 사할린에 오게 되었다며 이를 가장 기쁘게 생각한 사람은 어머니였다고 했다. 카오리 씨는 증조할아버지의 유골을 모신 일본 산원(집)을 찾으려고 코르사코브를 한 번 다녀왔지만 찾지는 못했다.

와타나베 카오리는 사할린에서 보낸 나날이 뽀뽀하고도 재미있었다고 한다. 사할린국립대 언어·역사·동양학 대학 임 엘비라 교수는 한인사회계 대표들을 소개시켰고, 엘레나 이콘니코와 교수는 러시아어와 문학에 관심을 보이게 했다.

카오리 씨는 사할린한인 역사 보다 현재의 삶, 언어 교육, 민족교육에 대해 연구하고 싶다고 한다.

"사할린 한인에 대해 연구할 마음은 변함없어요. 사할린 한인의 현재에 대해서 박사논문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할린에 있는 동안에 한국교육원에 많이 가서 수업 참관도 하고 요리 교실에서 요리도 배우고 선생님들과 얘기도 나눴어요. 한인들을 위해 현재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라고 그는 하였다.

"사할린에서 마음에 들었던 건 제 고향인 훗카이도와 비슷한 날씨와 도시의 분위기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음식도 러시아의 다른 지방에 비해 훨씬 맛있었어요."라고 하면서 사할린에 대한 소감을 나누었다.

그는 올해 8월쯤 3개월 코스로 방문할 계획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확실한 것은 사할린에 오고 싶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일본 연구가들은 사할린한인 관련 연구에 관심이 많다. 본 신문사가 알기로에는 이와 관련해 작년 여름부터 사할린을 네 명의 전문가가 사할린을 찾았었다.

(배순신 기자)

제22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

입양수기 부문 신설로 기록문학 활성화 기대

4.1(수)~5.31(일) <2개월>, 온라인(www.korean.net) 접수

재외동포재단(한우성 이사장)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제22회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를 시행한다.

재외동포 문학상은 재외동포의 한글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9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입양수기 부문을 신설해 우리 국민의 해외 입양동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 성인 부문은 시, 수필, 체험수기 ▲ 청소년은 글짓기(초등, 중·고등 부문) ▲ 해외 입양동포 및 자녀 대상 입양수기로 나누어 진행된다.

성인은 거주국에서 7년 이상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은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단, 역대 문학상 대상(성인 부문), 최우수상(청소년 부문)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가 불가능하다.

문단의 중진작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등 34편의 작품과 한글학교 2개교(본심 진출작품수와 수상작품수가 많은 학교를 점수화)를 선정하여 약 4천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지급한다. 8월에 수상자를 발표하고 수상작품은 책자로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 문학상은 재외동포들의 삶의 이야기를 '문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모국과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재외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공모전 응모를 희망하는 재외동포는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의 응모자격 및 주제, 분량 등을 참고하여, 완성 작품을 5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모저모

사할린 연금 수급자들, <고마워, 인터넷> 전국 경연에 참여

지난 <인터넷 초보>컴퓨터 교양 프로그램 과정을 수료한 사할린주의 연금 수급자들이 <고마워, 인터넷> 전국 경연에 254 개의 작품을 발표하여 시민 컴퓨터 교양 교육에 따른 지역 활동 등급에서 4위를 차지했다.

해마다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은 개인 컴퓨터의 인터넷 연결망으로 고령의 시민교육 활동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는 '인터넷 초보'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의 직원들과 협력자들의 기본 교육을 이수한 후 신인 사용자들을 위한 실습의 일환이 진행된다. 연금재단은 재단 홈페이지에서 이들에게 전자 서비스와 문의가 있는 '유체로브'를 소개한다. 연금 수급자들은 전자 형태로 연금재단의 서비스를 받고, 필요한 정보 찾기, 서류 주문하기, 접수 및 예약을 배우고 있다.

2019년에 일반과학도서관에서는 530명이 이 교육을 마쳤다. 이제 이들은 제5회 전국 '고마워, 인터넷' 경연에 참가할 일이 남았다. 전국 경연에서는 이들의 삶에 인터넷이 어떤 도움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작문을 작성해 제출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

청강생 중 12명이 이 기회를 활용해 컴퓨터 교양 분야에서 성과를 공유했다.

사할린 연금 수급자들은 254개의 작품을 발표하여 사할린주는 시민 컴퓨터 교양교육 활동 지역 중 상위 10위에 올랐고 등급별로는 4위를 차지했다. 1위에서 3위까지는 타타르스탄, 보로네즈주와 모스크

바주가 차지했다. 전국 경연 참가에 79개 행정지역에서 4천5백 개 이상의 신청건이 접수되었다.

Сахалинские пенсионеры участвовали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Спасибо Интернету"

Островные пенсионеры, прошедшие обучение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по программе "Азбука Интернета", представили на конкурс "Спасибо Интернету" 254 работы и заняли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активности регионов по обучению граждан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Ежегодн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оводятся занятия по обучению граждан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работе на персональном компьютере и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Занятия реализуются по учебной программе "Азбука Интернета".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основного блока обучения работники и партнеры библиотеки проводят цикл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для новоиспеченн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 том числе специалисты Пенсионного фонда знакомят сахалинских "юзеров" с электронными сервисам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ми на сайте фонда. Пенсионеры учатся записываться на прием, заказывать документы, искать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ормацию и получать другие услуги ПФР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иде.

В 2019 году в област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ошли обучение 530 человек. Всем им было предложе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V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Спасибо Интернету" — рассказать о том, какую пользу в их жизнь принес Интернет, напечатав небольшое эссе и направив его на конкурс. Двенадцать слушателей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и поделились достижениями в сфере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Островные пенсионеры представили 254 работы. Это позволил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пасть в топ-10 активных регионов по обучению граждан компьютерной грамотности, заняв четвертую строчку рейтинга.

Первые три места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между Республикой Татарстан, Воронежской и Московской областями.

Всего на конкурс было подано свыше 4,5 тыс. заявок из 79 регионов, сообщили в ПФР.

사할린 아동들의 그림을 우표로

대조국전쟁 75주년 기념 전국 그림 경연대회에 사할린 주민들의 참가를 기다린다. 경연의 최우수작은 우체국 규정 봉투의 우표 문양으로 새겨 넣어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게 된다.

주 정부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위대한 승리와 나의 가족> 경연은 <마크카> 사회단체와 연방 통신청의 후원으로 안드레이 페르워스단닌 재단이 주최한다.

참가 대상은 일반 학교, 예술 및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가정을 대상으로한 사회단체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다. 경연에서는 연령별 3그룹(6세-9세, 9세-14세, 14세-18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4월 17일까지 이메일 card-2020@fap.ru 로 신청서와 경연의 총 주제를 드러내고 우체국 세밀화 장르에 맞는 그림을 제출해야 한다.

각 연령별 그룹에 따라 심사위원이 우승자들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으로는 국가 및 사회기관 구성원, 안드레이 페르워스단닌 재단 지도자, 연방 통신청 지도자, <마크카(우표)>주식회사 대표, 사회단체들의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우승자들의 그림을 바탕으로 한 우체국 규정 봉투는 10만 부를 발행할 계획이다.

Рисунки сахалинских детей могут попасть на почтовые конверты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к участию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рисунков, посвященном 75-летию Победы. Главный приз — шедевр победителя поместят на почтовый конверт с марками, так что его действительное увидит вся страна.

(8면에 계속)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2020년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에게 한글 문학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모국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내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외동포 문학 공모전에 재외동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금년에는 입양수기 부문을 신설하여 입양동포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하오니, 해외입양동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최 및 주관 : 재외동포재단

후원 : 외교부

1. 응모 자격

○ 성인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7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 청소년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영주권 취득,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동포

청소년

· 초등 부문 : 만 7세 이상 만 13세 미만

· 중·고등 부문 :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 역대 재외동포문학상 대상(성인), 최우수상(청소년) 수상자는 동일 부문 응모 불가

○ 입양동포 부문

- 거주국 내 시민권을 취득한 입양동포 및 자녀

2. 공모 부문 및 주제

○ 성인(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 시·단편소설 : 자유주제

- 체험수기 : 이민과 정착 과정 속에서 겪은 본인, 가족, 친지의 체험담

○ 청소년(글짓기)

- 내가 다니는 한글학교에서의 일화 소개

- 한국 방문 및 한국어 학습 경험담

- 기타 자유로운 주제(자랑스러운 한국인, 현지 생활에서 보고 느낀 체험담 등)

○ 입양동포(입양수기)

- 본인, 가족의 정체성 확립 여정 및 '뿌리' 탐색기

- 기타 자유로운 주제(가족상봉, 한국 방문 경험담 등)

3. 부문별 원고 분량

부 문		출 품 편 수	1 편 당 원 고 분 량	비 고	
성 인	시	3~5편	제한없음	※ 미발표 한글 창작물	
	단편소설	3편 이내	글자수 1만6천자 내외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체험수기		글자수 1만자 내외		
중·고등 학생 글짓기	글자수 3천자 내외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청 소 년	초등 학생 글짓기	글자수 2천자 내외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글자수 1만자(한글), 4천8백자(영문) 내외 -작품응모서식 기준 10쪽 내외		※ 미발표 영 창작물
	입양동포 입양수기				

※ 작품응모서식은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에서 다운로드 가능

※ 매수는 원고지 또는 작품응모서식 기준 중 한 가지 반드시 충족

※ 원고 분량 80% 미만 또는 150% 이상은 탈락

4. 심사 및 시상내역

○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예심 → (3차) 본심

-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시상내역 : 총 34명 및 한글학교 2개교 선정, 총 상금 사천일백삼십만원

구 분	상 별	인원(명)	시 상 내역	비 고
성 인(3개 부문)	대 상	3	삼백만원, 상패	부문별 1인
[시/단편소설/ 체험수기]	우 수 상	6	이백만원, 상패	부문별 2인
	가 작	9	오십만원, 상패	부문별 3인
청 소 년(2개 부문)	최 우수 상	2	일백만원, 상패	부문별 1인
	우 수 상	4	오십만원, 상패	부문별 2인
[중·고생/초등]	장 려 상	6	삼십만원, 상패	부문별 3인
입 양 동 포 [입양수기]	대 상	1	삼백만원, 상패	
	우 수 상	1	이백만원, 상패	
	가 작	2	오십만원, 상패	
한글학교	특별상	2개교	이백만원, 상패	
총 계			사천일백삼십만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아빠 떡 댔다

가끔 농구공을 들고 나간다. 요즘은 체육관을 빌리고 정식으로 팀을 짜는 사회인 농구가 대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밤새 길거리 농구를 하던 때가 있었다.

공원이나 길가의 농구대에 수십 명이 모여들면 밤늦게까지 끝나지 않는 리그가 벌어진다. 땀뻘 땀을 흘리며 몸과 몸이 부딪치는 맛, 전혀 모르던 사람과 호흡이 척척 맞는 패스를 주고받는 맛, 이기고 나서 다음 도전팀의 긴장한 눈빛을 느끼는 맛, 탈진할 때까지 뛰다가 바닥에 쓰러져서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맛. 나는 그 느낌을 정말 사랑했다.

그래서 한 가지 꿈을 꾸었다. 나중에 내 아이가 자라 길거리 농구장에 들어올 때까지 나도 농구장에 남아 있고 싶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의 진로를 걱정할 셈이다.

삼십대에는 농구장에서 대학생들에게 밀리지 않았는데 사십대가 되니 느낌이 달랐다. 고무줄 같았던 근육이 서서히 떡으로 변해가는 느낌. 점프는 낮아지고 속도는 떨어지고 손발은 눈보다 게을러졌



다. 서너 달에 한 번 농구를 하니 감도 사라져 버렸다.

간혹 팀을 짜서 시합을 해도 대학생들에게 '어르신' 대접을 받는 느낌이 들어 서글퍼진다. 이를 악물어보지만 승률은 딱딱 떨어져서 드물게 이긴 날은 복권을 사고 싶을 정도다.

예전과 달리 길거리 농구장을 찾는 사람이 적어 삼대 삼 농구장을 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도 이제 몇 년 남지 않았다. 키가 커진 내 아이가 농구장에 들어올 그 날, 봐주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아빠에게 부딪쳐 올 그 날, 남자대남자로 승부할 그날을 생각하며 농구공에 바람을 넣는다. 혼자라도 길거리 농구장에 가서 공을 던진다.

어쩌다 농구장에서 대학생들과 뛰게 되면 옛 기분이 살아난다. 역시 혼자보다는 여럿이 어울리는 게 농구다. 졌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돌아가면 아이들이 묻는다.

"아빠 또 떡 댔어?"

살다보면 너희들도 이 기분을 느낄 거다. 그 때까지 신나게 뛰어보자.

광주에서 김남중

※ '한글학교 특별상'

· 재외공관에 등록된 비정규(주말) 한글학교 대상

· 청소년 부문에 응모한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한글학교에 수여

· 학교별 본심 진출작품수 및 수상작품수를 점수화하여 선정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0.4.1(수) ~ 5.31(일) 23:59, 한국시간 기준(마감일 엄수 요망)

나. 접수방법 :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 통해 온라인 접수

○ 코리안넷 공지사항 또는 팝업존 "제22회 재외동포문학상" 작품 공모 → 하단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 하여 첨부파일로 작품 제출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코리안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 신청하기 클릭

○ 응모작품 : 코리안넷 홈페이지(www.korean.net) 공지사항에서 '작품응모서식' 다운로드 하여 첨부파일로 제출

※ 첨부파일명은 응모자명, 응모분야, 작품명 순으로 기재

※ 재외 거주기간 확인을 위한 체류자격 증빙서류의 경우 **수상자에 한해 추후 별도 제출**(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고유번호 등 삭제 요망)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

○ 발표 : 8월 중 수상자에 한 해 개별 통보, 코리안넷 홈페이지 게시

○ 시상 : 수상자는 거주국 관할공관에서 전수식 개최 예정

6. 기타 및 유의사항

○ 응모자는 신예·기성작가 등 제한 없이 응모자격 해당자에 한하며, 장르에 관계없이 1개 이상의 분야에 복수응모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 신청서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미흡할 시, 접수되지 않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모 서류와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상자의 경우 <1>의 응모 자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증빙서류를 수상자 발표(개별 통보) 후 2주일 내 재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혹은 자격 미달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래 사항 해당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도 수상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습니다.

- 국내외 여타 기관 또는 매체(신문, 인터넷매체 등)에 기발표 작품

- 표절 또는 표절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인 작품

-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모든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나,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재단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보상은 상금으로 대체합니다.

○ 수상작에 한하여 공익 및 홍보 등의 목적으로 재단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수상작품집 책자(비매품)로 출간되며, 추후 온라인 콘텐츠 등으로 활용 예정

■ 문의 :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박한솔 직원

○ 전 화 : +82-64-786-0247 / 이메일 : culture@okf.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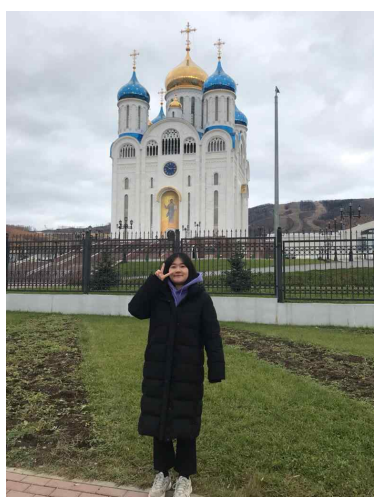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До свидания, Сахалин!

С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обучались три студента из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месте с молодыми людьм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ребята усердно изучали рус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у, участвовали в раз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для них преподавателями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Института фил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СахГУ. В начале второго семестра двое 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ов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Предлагаем читателям газеты небольшой рассказ одной студентки. Это первый публицистический опыт девушки, которая в будущем намеренна продолжить знакомство с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Профессор кафед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литературы СахГУ Елена Иконникова.

Меня зовут Ким Чхери. Моё русское имя Соня. Я студентка по обмену из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он находится в Южной Корее).



Я приехала на Сахалин для изучения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сентябре 2019 года. В январе я поехала домой на каникулы. В самом начале марта я вернулась в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но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меня изолировали в общежитии на две недели. Каждое утро приходили врачи и осматривали меня. Я не должна была выходить на улицу во время карантина, поэтому, конечно, мне было неудобно эти две недели. Период карантина на Сахалине был для меня очень трудным. Н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моего карантина, я узнала, что в России уже много подтвержденных случаев коронавируса.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я решила вернуться в Корею. Мне очень жаль! Мне нравится учиться на Сахалине. Я обязательно когда-нибудь вернусь на Сахалин! До свидания, Сахалин!

Студентка Пусан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Ким Чхери.

저는 한국의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사할린에 와서 사할린국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채리 (Соня Ким)입니다.

저는 2019년도 9월에 러시아어를 공부하기 위해 사할린에 왔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할린에서 2주 동안 기숙사에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의사들이 와서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격리하는 동안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2주 동안 밥과 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사할린에서 격리 기간은 나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격리가 끝나자 러시아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할린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쉬움이 큼니다. 언젠가 사할린에 꼭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사할린!

부산 외국어대학교 김채리 학생

Спецпроект

Пусан: город поэзии и страсти Пусан: поэзия, растворённая в море

Пусан, крупнейший порт Кореи и второй по величине город страны, богат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и вкусной местной едой. Это также город фестивалей, где проходит множество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чарование Пусана проистекает из его открытости и гибкости, вылепленной долгими веками истории.

Пляж Хэундэ — самое популярное летнее направление в Корее. Каждое лето сюда приезжает более 10 млн. человек. А прогулочные тропы вдоль побережья и разнообраз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привлекает сюда туристов круглый год. Поднимающиеся рядом с пляжем жилые дома повышенной этажности теперь являются самой дорогой жилой недвижимостью после сеульской.

Береговая линия Пусана протянулась более чем на 300 км вдоль юго-восточной оконеч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на изящна и в то же время прочна. Тёмно-синие воды Восточного моря, смешиваясь с водами Южного моря, становятся мягче. Вдоль этой исполненной лиризма изогнутой линии, подаренной природой, веками селились люди. Распрямившись душой и телом, они рождались и росли здесь, наполняясь чув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и силой воображения, которую дарило море. Поэтому здесь люди по-разному мечтают о Пусане, и Пусан вызывает к ним разными голосами.

Многоликий Пусан

В Пусане есть 7 пляжей с ослепительно-белым песком, прежде всего — Хэундэ, самый популярный пляж в Корее. На восточной оконечности города раскинулся пляж Имнан (Имран), на западной — пляж Сондо, первый рукотворный пляж в стране, созданный более века назад. А ещё есть пляж Тэдапхо, знаменитый своим самым большим в мире поющим фонтаном Накчо.

Посетителей также ждут Игидэ, Тхэчжондэ и Морундэ, скалы причудливой формы, которые величественно возвышаются на фоне иссиня-чёрного моря. Сохранившие свою первозданность, эти утёсы заросли лесами с множеством редких животных и растений. Море, на которое смотришь из лесных зарослей, кажется ещё глубже и прекраснее. Поездка ночью на прогулочном корабле, когда, расслаблено качаясь на волнах, впитываешь ночные виды Пусана, — это романтика, которую нельзя упустить.

На побережье Пусана есть более 60 эстуариев. Порыбачить в месте, где широко открывается линия горизонта, — особое удовольствие для рыбаков. А для гурмана ни с чем не сравнимой радостью станет дегустация свежих морепродуктов, которые пожилые ныряльщики «хэнь» только что выловили из моря и теперь, разделав, предлагают всем желающим прямо в центре города.

А ещё здесь есть прекрасные мосты. Прорезая море ослепительными линиями, они обещают увлекательную поездку на автомобиле. Проехав по мостам Кванан, Пусанхан и Намхан, можно достичь пляжа Сондо на южной оконечности Пусана. Там вас встретит Пусанский порт, заполненный огромными кранами и контейнерами, а также прекрасная якорная стоянка, где пришвартованы только что прибывшие или собирающиеся вскоре отправиться в путь корабли. А если проехать дальше, по мосту Ыльсукто, доберётесь до западного конца город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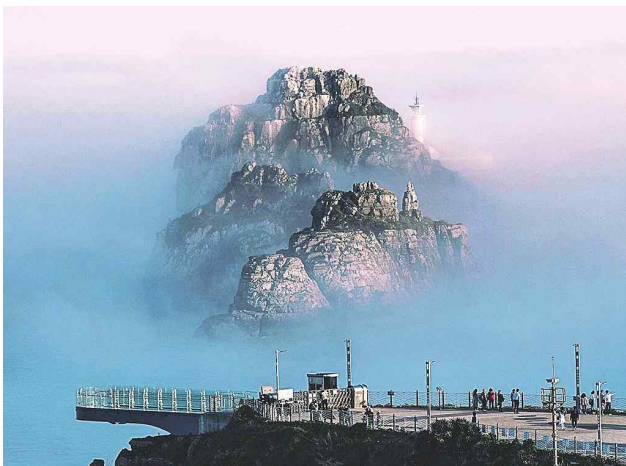
Гибридность и индивидуальность

Море вызывает в нас разные состояния души. Поэтому, стоя перед морем, каждый встречается со своей собственной волной и получает в подарок прилив необходимого только ему воображения. Молодым море кажется молодостью, когда сердце бьётся учащённо, для одиноких оно становится любимым человеком. Уставших море учит основам жизни, разгневанных — терпимости. Для рабочего человека — это источник пропитания, для писателя — сокровищница историй, для капитана — дальний рейс. Для достигших просветления оно будет голосом разума, а для тех, кто ещё познает мир,

— приятным волнением. Море — это то, что утром скакало девчонкой с распущенными волосами, а вечером протягивает старческие руки, испещрённые морщинами.

Разбросанные по всему городу следы эпохи неолита говорят о долгой истории Пусана как рыбацкого поселения. В деревнях вдоль побережья до сих пор сохраняют шаманские обряды и верят в Маго-хальми, или Бабушку Маго, гигантскую богиню, создавшую всё живое, а также в Царя Дракона. С превращением Пусана в большой город эти некогда тихие деревушки наполнились людьми, пытающимися заработать себе на жизнь.

Больше всего взлётов и падений Пусан пережил в период позднего Нового и Новейшего времени. Во время японского правления порт был местом отправления паромов, курсировавших между Пусаном и Японией. А когда в 1950 разразилась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в город, как потоки слёз, стекались беженцы со всей страны. Позже отсюда отправлялись войска во Вьетнам и уходили в плавание бесчисленные рыболовецкие суда, промышляющие в дальнем море, — чтобы потом сюда же вернуться.



Острова Орюк-то у входа в Пусанский залив издревле являются символом Пусана. Они включены под номером 24 в Список живописных мест, охраняемых государством. Все эти острова, за исключением Тындэ-сома, необитаемые. © Busan Metropolitan City (Photographer Kwon Jeong-uk)

Каждый раз, когда Пусан наводняли толпы людей, он должен был обеспечивать их кровом и пищей. И он справлялся с этой задачей. принимал и иммигрантов,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здесь смешались разнородные культуры, превратив Пусан в культурный плавильный котёл. Обретенная в итоге гибридность и есть подлинный «дух Пусана».

Гибридность — это другое название терпимости. Способность молча справляться со всеми тяжёлыми историческими событиями идёт из широты души Пусана. Эта широта души сформировала характер его жителей и помогла расцвести местной культуре. Динамичная и созидательная натура пусанцев служит фундаментом для процветания здесь популярной культуры, включающей традиционные народные искусства, поп-песни, кино и фестивали.

Воображение, которому научило море

Ещё одна лирическая сторона Пусана — горные районы.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и последующей индустриализации город разрастался, и бедняки забирались в горы, чтобы строить там свои дощатые хибары. Если взглянуть на наслаивающиеся друг на друга крыши и цистерны с водой, можно увидеть другую Пусан. Для тех, кто смотрел на море из горного бедняцкого района с его трудной жизнью, оно казалось дверью, которую нужно было открыть. И люди открывали эту синюю дверь — в свои жизни, в свои мечты, в сторону Тихого и Атлантического океана.

(Окончание на 6 странице)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Олимпиада в Токио пройдёт с 23 июля по 8 августа 2021 год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МОК) объявил новые даты проведения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Токио. Они пройдут с 23 июля по 8 августа 2021 года. Пара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состоятся с 24 августа по 5 сентября. Новый график соревнований согласова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ходе теле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зидент МОК Томас Бах, 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комитета Игр Есиро Мори, губернатор Токио Юрико Коикэ и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Олимпийских 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Сэйко Хасимото.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лимпиада должна была пройти с 24 июля по 9 августа этого года, но её перенесли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в связи с глобальной пандемией вируса COVID-19.

Учебный год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начнётся 9 апреля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режиме

Учебный год 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начнётся 9 апреля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режим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Чон Сэ Гюн, выступая 31 марта на совещании по вопросам борьбы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COVID-19. Не раскрывая подробностей, он отметил, что начало занятий будет поэтапным, чтобы помочь ученикам адаптироваться к новой для них модели обучения. Новый учебный год в РК обычно начинается в марте, но из-за опасени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COVID-19 его начало переносилось трижды - сначала до девятого, затем до 23-го марта и до шестого апреля. Главной причиной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большие группы людей, которые проводят много времени в закрытых помещениях, уязвимы для инфекции. Гла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извал органы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вести тщате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к началу занятий, обеспечив всем ученикам доступ к компьютеру, который подключён к сети Интернет. Кроме того, он не исключил возможности переноса еди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кзамена на 19 ноября.

Власти Сеула сокращают время работы метрополитена

Власти Сеула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сократить время работы метрополитена в связи с резким сокращением числа пассажиров. Из-за пандемии вируса COVID-19 южнокорейцы стараются избегать людных мест, реже пользуясь общественным транспортом. Так, после 23 февраля, ког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траны рекомендовало ужесточить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сократился на 40%. С 1 апреля работа всех линий Сеульского метрополитена будет заканчиваться в полночь, на час раньше, чем сейчас. Это позволит выделит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время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дезинфекции.

В РК завершилась регистрация кандидатов для участия в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27 марта в РК завершилась регистрация кандидатов для участия в парламентских выборах,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15 апреля. Своих кандидатов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ли 35 политических партий, что является рекордной отметкой.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збирательный бюллетень, в котором указаны все кандидаты, оказался слишком длинным - 48,1 см.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при подсчёте голосов стало невозможным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ортировочной машины. За партиями были закреплены номера: за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ей Тобуро - 1, за Объединённой партией будущего - 2, за Партией народ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 3, за Корейской партией будущего - 4, Народной партией Тобуро - 5, партией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 6. Партии, которые имеют равное количество мандатов, определили номера посредством жребия. Конкуренция на выборах по одномандатным округам составляет 4,4 кандидата на одно место. Это выше, чем в ходе выборов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20-го и 19-го созывов. Самая высокая конкуренция наблюдается в Сеуле в избирательном округе Чонно - 12 человек на место. Официальная предвыборная агитация стартовала 2 апреля.

Компании Samsung и LG приостановили работу своих телевизионных заводов в Росси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компании Samsung Electronics и LG Electronics приостановили работу своих заводов по сборке телевизоров в России, где с 28 марта по 3 апреля объявлен обще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плачиваемый отпуск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COVID-19. Samsung Electronics приостановила сборочные линии в Калуге, а LG Electronics - в подмосковном городе Руза. Завод LG Electronics по сборке телевизоров и кондиционеров в бразильском городе Манаус закрыт до 3 апреля. Ранее компания закрыла свои заводы в США до 12 апреля, а в Индии - до 14 апреля. Заводы Samsung Electronics в Бразилии, Индии, Словакии, Польше и Венгрии также временно не работают. (RKI)

Научились жить в "тонусе" Почему Южная Корея сумела быстро справиться с COVID-19

Южная Корея еще совсем недавно не сходилась с первых полос мировых СМИ в качестве второго крупнейшего очага коронавируса COVID-19 в мире, уступая лишь Китаю. Сейчас же число выздоровевших уже превысило половину, а смертность остается на очень низком уровне - менее двух процентов. Вирус же в стране если не побежден полностью, то однозначно отступает по всем направлениям. Как же удалось Южной Корее буквально за три-четыре недели справиться с вирусом, который держит в страхе мно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Тем более, что страна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очень "удобное" место для эпидемии: очень высокая плотность населения, скопление людей в городах, прекрасно развитая транспорт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любовь корейцев к частым встречам, "посиделкам" и так далее.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факторов - предыдущий опыт и умение делать выводы. Южная Корея пять лет назад уже столкнулась со вспышкой коронавируса MERS, который назвали "верблюжьим гриппом". Вот тогд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Кореи и врачи заслуженно услышали немало нелестных оценок в свой адрес, хотя в итоге и сумели победить инфекцию. В целом же именно тогда на собственных ошибках была "обкатана" система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подобные инфекции и был выявлен оптимальный алгоритм работы, который был задействован при COVID-19.

Следующая причина - 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ая реакция властей. Болезненная память о провале при MERS в 2015 году, а также соседство с Китаем сразу заставили Корею реагировать весьма быстро. Хотя фактор пресловутой секты "Синчхонджи", когда ее последователи намеренно ввели в заблуждение власти и затруднили поиск потенциальных носителей вируса, и осложнил ситуацию, но в целом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ханизмы отслеживания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равда тут несколько подвела надежда на добросовестность сограждан, почему и появился крупный очаг на юго-востоке страны - в городе Тэгу и прилегающих районах. Однако уже тогда было ясно, среди кого надо искать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Потому и были брошены все силы на последователей культа "Синчхонджи", среди которых и контактировавших с ними людей и значится большинство зараженных COVID-19. Это позволило локализовать главную опасность и не допустить переполнения клиник, что угрожало бы коллапсом всей систем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ак это сейчас происходит в некоторых государствах Европы.

Следующий фактор - опять же быстрая система тестирования, включая передвижные пункты. Сразу стоит отметить, что в Корею как минимум на первых порах не все действовало так эффективно, как пытаются писать некоторые зарубежные СМИ, и далеко не всегда вы имели на руках результаты теста через 15 минут. Не было и "поголовного тестирования", а желающих "просто провериться" часто просили подождать, если нет симптомов, чтобы не перегружать лаборатории и не задерживать обработку результатов тех, ког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адо было немедленно проверять. Но многие шероховатости были в итоге устранены и теперь все работает очень четко.

В Корею отслеживают контакты всех больных через операторов сотовой связи и видеокамеры

Естественно, очень помогла система отслеживания всех контактов больных, которая была создана и отлажена при вспышке MERS. Постепенно она была у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а, когда в одну базу данных сводятся сведения, поступающие от всех мобильных операторов связи, данные компаний, выдавших банковские карты и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задействуются камеры наблюдения. В итоге быстро определяются те, кому опасность угрожае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они тестируются и изолирую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м, где разгуливал зараженный, выкладывается в открытый доступ и сообщается на мобильный телефон всем, кто проживает в том районе или проезжает через район. Так можно быстро проверить, был ли ты с носителем инфекции где-то случайно вместе, допустим, в одном и том же ресторане и стоит ли тебе спешить делать тест на COVID-19.

На опыте пятилетней давности власти Кореи усвоили, что недостаток информации очень быстро



Кампания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Сеуле, Южная Корея. Фото: AFP/YONHAP

восполняется слухами, причем подчас весьма дикими и неправдоподобными, но которые распространяются еще быстрее вируса. Потому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СМИ стали получать самую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т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Брифинги поначалу проводились по два раза в день, а затем их частоту снизили до одного раза, но все равно они проходят ежедневно, более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исутствует на сайтах вовлеченных ведомств. В итоге журналисты и все желающие имеют необходимую баз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Впрочем, параллельно власти вели и борьбу со слухами, которые все равно возникают и существуют.

Одним из залогов успеха стало понимание корейцами того, что борьба с вирусом - это общая проблема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активная работа с общественным мнением и СМИ в плане создания понимания, что COVID-19 - это общая проблема, а потому решить ее можно только сообща. Нельзя сказать, что корейцы следуют всем рекомендациям беспрекословно и со стопроцентной точностью, но в обществе есть понимание как минимум у подавляющего большинства, что надо соблюдать предписания - носить маски, мыть руки, отказываться от собрания и пр., что это в общих интересах. Случаи вопиющих нарушений СМИ очень быстро тиражируют, причем понят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подобным поступкам - они осуждаются, что создае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фон. В целом же корейцы более склонны прислушиваться к рекомендация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и властей, чем жители некоторых других стран. В этом плане любопытно, что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успешно справляются сейчас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траны "конфуцианского ареала" - Китай, Южная Корея, Тайвань, Япония, Вьетнам. А для этой культуры характерно ува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власти. Безусловно, что сказался и опыт MERS в 2015 году.

Если же кто-то не подчиняется, то власти после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реагируют решительно. Тут не стоит строить иллюзий: законопослушность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эффективной работой аппарата принуждения. Отсутствие массовых жестких мер, наверное,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власти успели поймать вирус и локализовать его в том же Тэгу, не допустив д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 противном случае, как видится, если бы эпидемия охватила всю Корею, то мы бы видели и жесткие штрафы за отсутствие масок и аресты с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изоляцией за малейшие нарушения режима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Когда надо, власти Кореи вполне могут добиться и этого.

Есть наверняка и другие факторы, которые внесли свой вклад в успешную борьбу Южной Коре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 фактическое отсутствие сухопутных границ, через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ует активное движение людей, приближающиеся выборы в парламент, что заставля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росать все силы на устранение кризиса, присутствие рядом КНДР, которая всегда держи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органы "в тонусе", в том числе в плане готовности к возможному ЧМ и прочее, но все они скорее играют второстепенную роль. Главное, наверное, в том, что корейцы смогли раньше пройти через схожую ситуацию, "набили шишки" и, ч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смогли сделать правильные выводы. В итоге - за одного битого двух небитых дают. Именно это мы видим на примере Южной Кореи.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режиму самоизоляци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л еще одним субъектом страны, где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вели режим самоизоляции. Он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до 5 апрел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указ подписал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окумент направлен во все органы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егиона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Согласно указу губернатора вс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лжны оставаться дома. Выходить можно только за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ью, в ближайший магазин, а также вынести мусор или выгулять собаку, но на расстоянии не более ста метров от дома.

Режим самоизоляции не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только на работников жизненно важ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которые продолжают работать. В их числе – органы власти 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е органы,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экстренные службы, аптеки, продуктовые магазины.

– Мы должны с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опасной болезн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ловинчатых мер здесь быть не может. Только строгие ограничения позволят нам справиться с ситуацие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нимаю, что все это создает определенный дискомфорт, меняет наши планы, уклад жизни. Но это необходимо, чтобы остановить инфекцию, сохранить здоровье наших близких.

В зоне особого риска – люди старше 65 лет и те, кто имеет серьез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За помощью в приобретении продуктов, лекарств, за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оддержкой и по другим вопросам они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к волонтерам и социальным работникам. Действует горячая линия област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защиты: 8-800-201-00-99.

Те, кто выходит из дома, должны соблюдать дистанцию до других людей – не менее полутора метров. Режим самоизоляции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также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оездки за предел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изывает островитян оставаться дома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овали работу по информированию жителей о важности соблюдения карантина. 31 март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стретился с волонтерами и полицейскими, которые приступили к совместному патрулированию на улица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ктивисты и сотрудник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сообщают жителям о правилах поведения в условиях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 Нужно максимально внимательно отнестись к людям. Мы должны их убедить в том, что лучше сейчас оставаться дома. Особенно это касается островитян старше 65 лет. Они больше остальных подвержены опасност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бращаясь к волонтерам и полицейским.

Как отметил начальник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сен Исагулов, информированием жителей сейчас занимается весь личный состав, задействованный в охране правопорядка.

– Кроме того, для совместной с добровольцами деятельности мы выделили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сотрудников, доносим до ж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с помощью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патруль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 сказал он.

В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к работе по информированию привлекли более 67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олонтерски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реди них: «Молодая гвардия», «Волонтеры-медики»,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ый отряд Сова», «Братство Александра Невского», «Волонтеры Победы», «Юнармия» и другие. График патрулирования составлен на ближайшие две недели.

– Сегодня же наши волонтеры начали помогать сотрудникам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ни встречают каждый рейс, всех пассажиров фотографируют и помогают заполнять анкеты. По-

скольку прибывающие в регион сразу же отправляются на карантин, они в любой момент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за помощью к нашим добровольцам, – сообщ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област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Дмитрий Смекалов. – Все, кто желает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оказанию помощи в борьбе с не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ричем, вне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какому-либо общественному движению, могут обращаться в наше агентство по номеру 671-671.

В региональном минздраве напоминают, что записываться к врачу можно дистанционно, через Интернет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в случае неотложной помощи необходимо вызвать врача на дом. По вопросам оказания медпомощи можно обращаться на линию 1-300 добровольный 8 или 8-800-30-06-503.

Оформлять доставку продуктов, решать бытовые вопросы поможет горячая линия соцзащиты — 8-800-201-00-99.

Все прибывшие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и их семьи обязаны находиться в домашней обсервации

Предписание кас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пассажиров зарубежных и российских авиарейсов, паромной переправы, но и тех, с кем они проживают. Такое решение сегодня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заседании оперативного штаба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Еще в пункте вылета пассажиров будут предупреждать, чт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их и членов их семей ждет двухнедельный карантин – без возможности выйти из дома. В воздушной или морской гавани каждый должен сдать анализ и оставить свою подпись под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предписанием главного санитарного врача РФ. Сейчас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оздается база данных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находиться в самоизоляции.

Чтобы усилить контроль над соблюдением режима,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Сахалинцы, которые обязаны находиться на карантине, дают свое официальное согласие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 фотографии, транспортных номеров, данных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Система «Безопасный город» и телефонная связь позволяют отслеживать тех, кто выходит из дома и представляет опасность для здоровья окружающих. За нарушение грози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плоть до уголовной.

– От всех жителей нашей области сейчас требуется железная дисциплина, только так мы справимся с опасным заболеванием. Большинство людей проявляют сознательность, дают свое добровольное согласие и спокойно переживают карантин дома. Они не хотят ставить под удар своих родных, друзей, соседей, коллег. Но есть также люди, которые не соблюдают режим и рискуют здоровьем окружающих,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гиональный минздрав и Управление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а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егодня адресно работают с каждым пассажиром. Уже проверили около 200 человек с московского рейса, с которым 19 марта на остров попала коронавирусная инфекция. Все пассажиры и их ближайшее окружение находятся на домашнем карантине.

На заседании оперативного штаба было дано еще одно важное поручение – сформировать базу данных жителей,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ивают жизнедеятельность региона. Это работник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медицинских и экстренных служб, предприятий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магазинов, аптек и других жизненно важ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ни получают специальные QR-коды, разрешающие выходить на работу и перемещаться по городу.

– Это временные неудобства. Чем добросовестнее мы будем относиться ко всем предписаниям, тем быстрее вернемся к прежнему образу жизни,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Ющук рассказал, что сахалин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в сутки исследуют на коронавирус анализы 600 человек. На штабе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усилить медицинские службы, оснастить еще восемь рабочих мест – это позволит дополнительно исследовать анализы еще 1000 человек за день.

Пациенты с подозрением на COVID-19 направляются в областной кожно-венер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там специально предусмотрено 85 коек. Также подготовлено 200 мест в Долин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Инфекционный госпиталь (55 коек) разворачивается в санатории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В качестве обсервационных пунктов используются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досуговый центр «Юбилейный», лагерь «Юны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 гостиница «Спортивная». Еще один медицинский обсерватор сейчас создается в санатории «Аралия». До 1000 резервных мест обустроивается на базе спортивного комплекса «Олимпия парк».

По итогам оперативного штаба,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 создать ситу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ри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который будет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работу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Для информирования жителей работает региональная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ая система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го оповещения. Два раза в день, в 10 и 14 часов, сахалинцам будут напоминать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ставаться дома.

Новое пульмон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открыло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больнице

Отделение было открыто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и имеет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ля оказани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ациентам со всего региона. Сахалинцы с диагнозом «внебольничная пневмония» поступают сюда без риска соприкоснуться с другой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ей. При обследовании больных применяются современные методы диагностики.

– Решение об открытии отделения было принято 24 марта, а три дня спустя, 27 марта, отделение было готово к приему больных, – рассказал главный врач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Владимир Розумейко. – Мы принимаем пациентов со всей области с пневмониями средней и тяжелой степени и отрицательным результатом на коронавирусную инфекцию. Пациентов из безлежачих районов планируем доставлять каретами скорой помощи, из отдаленных – санавиацией.

Пациентам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го отделения уже стали 7 человек. Среди них жительница села Дачное Екатерина Тимофеевна.

– Появились слабость и отдышка, – говорит женщина. – Обратилась в больницу, взяли анализы, сделали ЭКГ и флюорографию. С диагнозом пневмония попала сначала в инфекционное отделение городской больницы имени Анкудинова, а потом перевели в областную больницу. Условия здесь хорошие. Персонал внимательный. И доктор замечательный.

Новое отделение рассчитано на 24 койки и имеет палату интенсивной терапии. Работают здесь 7 врачей, 12 медсестер и 10 санитарок. Возглавил новое структурн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больницы опытный врач, терапевт-пульмонолог Андрей Мушников.

Пульмон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открыто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Инициатива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осемь направлений развит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включа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е оказания первичн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мощи при сердечно-сосудистых и онкологических заболеваниях, развитие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детям,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ов-медиков, цифровизацию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центров и медицинского туризм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пецпроект

Пусан: город поэзии и страсти Пусан: поэзия, растворённая в море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4 странице)

Родившись в горном районе острова Ён-до, я рос, глаза на ночное море перед Пусаном через треснувшее стекло окна. Однажды ночью там бросил якорь огромный корабль. Тысячи его огней казались мириадами серебряных и золотых нитей. Потом он ушёл, а его место занял другой корабль. Так я узнал о глубине и просторе мира. Это благодаря воображению, пользоваться которым меня научило море, я стал поэтом и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м, бродящим по миру с рюкзаком.

Динамичная культура

В Пусане море не придёт к вам, если вы будете просто ждать. Это дверь, к которой нужно подойти самому и открыть её. В будоражащей атмосфере, которая скрывается за этой синей дверью, разворачиваются культурные собы-

тия: Пу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Пусанская бьеннале, Морской фестиваль искусств, Пу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рок-фестиваль, Пусан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театр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естиваль мор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При этом растёт число фестивалей, которые приобретают репутацию за границей.

В Пусане также много разнообразных местных фестивалей. На фестивале Чагальчи проводят обряд «ёнсиндже», когда молятся Царю Дракону, чтобы он даровал безопасность в море и ниспослал богатый урожай, а также обряд «вирёндже», чтобы утешить души рыб,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поминают о долговременной связи Пусана с морем, которое всё это время служило ему основой жизни. На Фестивале песка Хэундэ художники из Кореи и из-за рубежа создают разнообразные песчаные

скульптуры. А каждую осень, во время Пуса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фейерверков, ночное небо над городом наполняется светом и цветом, напоминая великолепную вышивку. На Фестивале анчоусов всегда царит оживление, а Пусанский морской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т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пяти пляжах. Эти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 морскую тематику не дают прерваться романтике и веселью круглый год. В то же время соревнования би-боев в парке на горе Ёнду-сан раскрывают истинный темперамент Пусана: страсть и необузданность. Эти черты характера, которые вылепили дух Пусана, превратили культуру города в народную силу. Немейнстримовые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такие как независимое искусство и критика, заняли прочное место в качестве источника созидательной мощи, определяющей идентичность Пусана.

И сегодня море у Пусана пестрит мелкой рябью. Эти сверкающие блёстки, тая в себе невидимые, бесконечно колеблющиеся круги на воде, становятся стихами, которые звучат глубоким, тёплым и сильным голосом.

Ким Суу, поэт
Источник – <https://koreana.or.kr/>

기획특집

부산 : 시와 열정의 항구 1. 부산, 한 편의 시(詩)로 출렁이다

대한민국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관광 광지이면서 다수의 문화예술 행사가 열리는 축제의 도시이기도 하다. 이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오랜 시간 체득한 개방성과 혼종성이 빚어낸 부산의 매력이다. 바다를 품은 도시가 지닌 상상력과 감수성이 특유의 역동성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매년 여름 천만 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찾는 국내 최대의 피서지이다. 또한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산책로와 다양한 시설이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인기 높은 관광지이기도 하다. 최근 고층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서면서 호화 주거지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부산관광공사

동해에서 남해까지 30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부산의 해안선은 섬세하면서 동시에 강인하다. 동해의 질푸른 물살은 남해로 접어들며 너그러워진다. 자연이 선물한 이 서정적인 곡선을 따라 오랜 세월 사람들이 스며들었다. 그렇게 해안가에 몸과 마음을 풀어낸 사람들은 바다의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태어나고 성장했다.

부산의 하루하루는 언제 어디서나 선물 같다. 해수욕장과 포구가 많고, 포구가 많은 만큼 갯마을과 등대가 많다. 아름다운 낚시터와 어시장도 즐비하다. 세계적인 항구가 있고 부두가 있으며, 바위 절벽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또한 무수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산을 꿈꾸는 방식도, 부산이 사람들을 부르는 목소리도 다양하다.



해운대해수욕장, 부산영화촬영영스튜디오, 수영만 요트경기장, 영화의전당, 오륙도, UN기념공원, 부산항대교, 차이나타운, 중앙동 40계단, 보수동 책방골목, 자갈치시장, 영도, 임시수도기념관, 감천문화마을 © 안홍범(Ahn Hong-beom 安洪範)

부산의 여러 얼굴

한국에서 가장 봄비는 바닷가 해운대를 포함해 부산에는 눈부신 백사장이 펼쳐지는 7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동쪽 끝엔 임랑 해수욕장이 있고, 서쪽으로는 100년의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 제1호 해수욕장 송도가 있으며, 세계 최대의 낙조 분수로 유명한 다대포가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이기대와 태종대, 물운대 등 검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는 기암절벽들도 누군가 찾아주기를 기다린다. 원시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절벽들은 저마다 고유한 숲을 지니고 있고, 그 숲에는 귀한 동식물들이 가득하다. 푸른 숲을 통해 만나는 바다는 더 깊고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바다 위에서 유람선을 타고 느긋하게 바라보는 부산 야경은 놓칠 수 없는 낭만이다.

게다가 부산은 여울 깊은 60여 개의 포구를 안고 있다. 포구는 강물이 바다에 이르러 몸을 푸는 자리이다. 수평선이 너그럽게 열리는 포구를 찾아 즐기는 낚시도 특별한 감성을 자아낸다. 도심 속 포구의 해녀촌을 찾아들어 나이 지긋한 해녀가 건져 올려 바로

손질해 주는 싱그러운 해산물로 바다를 맛보는 일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그런가 하면 도심 바깥으로 바다를 가로지르며 눈부신 선을 만드는 아름다운 대교들은 분명 유쾌한 주행이 될 것이다.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를 이어서 달리면 부산의 남쪽 끝을 이루는 송도에 이른다. 그곳에서 우리는 거대한 크레인과 컨테이너들이 그득한 부산항을 만나고, 막 도착했거나 곧 떠날 기선들이 머무는 아름다운 묘박지와도 만난다. 더 달려 을숙도대교까지 관통하면 부산의 서쪽 끝에 이르게 된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준공, 1988년 정식 개관되었고, 1986년과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1988년 올림픽경기대회 요트 경기가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 이미지 투데이

혼종성과 창조적 개성

바다는 다양한 심상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다. 그래서 바다 앞에 서면 누구나 자신만의 물결을 만나게 되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상력을 선물받는다. 젊은이에게 바다는 가슴 뛰는 청춘일 것이고, 외로운 자에게는 연인일 것이다. 고단한 자에게는 삶의 근원을, 분노한 자에게는 포용을 가르친다. 노동자에게는 삶의 터전일 터이고, 작가에게는 이야기의 보고, 선장에게는 먼 여로일 것이다. 또한 깨달은 자에게는 순리로, 배우는 자에게는 설렘으로 다가온다. 아침엔 다팔머리 계집애였다가 저녁엔 할머니의 주름 깊은 손을 보여 주는 것이 바다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부산은 어촌의 역사가 꽤 깊다. 해안선을 따라 자리 잡은 어촌들은 다양한 무속과 마고신앙과 용왕신앙의 풍습들을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 조용했던 이 어촌들은 부산이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야 하는 생활 공간으로 변모되었다. 무엇보다 이 도시는 근대사를 관통하며 마구 출렁거렸다. 일제 강점기에는 관부연락선이 기적을 올리는 출발지였고,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각지에서 찾아온 무수한 피난민들이 보따리를 내려놓은 눈물의 도착지였다. 월남 파병 부대도, 무수한 원양 어선도 이곳에서 떠났다가 이곳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이 파도처럼 몰려들 때마다 부산은 그들이 머물 자리와 먹거리를 마련해야 했다. 그때마다 이 도시는 모든 것들을 베풀었다. 부산의 바다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 개방성과 포용성을 체득해왔다. 외국 이주민들까지 받아들여 이질적인 문화들이 뒤섞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 부산은 혼종성을 획득하게 된다. 다양한 문화를 도가니처럼 담고 있는 이 혼종성이야말로 '부산 정신'의 진정한 면모이다.

혼종성의 다른 이름은 관용이다. 고단한 모든 시대를 묵묵히 감당해 낸 역량은 너그러움에 있다. 이 너그러움이 민중성을 만들어낸 힘이며, 그런 까닭에 부산에서는 민중 문화가 발달했다. 부산의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민중성은 민속놀이를 비롯하여 대중가요, 영화, 축제 등 대중문화가 성행하는 요인이 되었다.

사람들이 파도처럼 몰려들 때마다 부산은 그들이 머물 자리와 먹거리를 마련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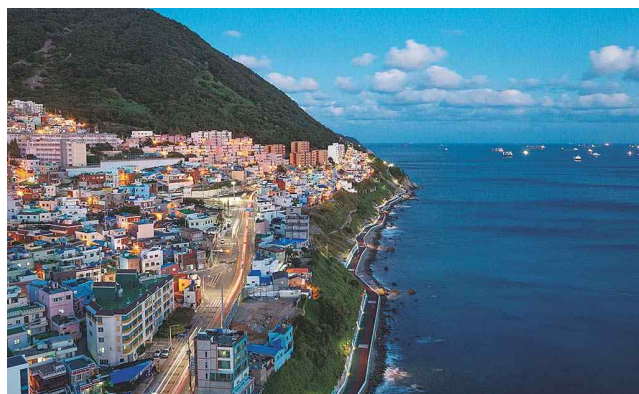
그때마다 이 도시는 모든 것들을 베풀었다. 부산의 바다는 그렇게 오랜 역사를 통해 개방성과 포용성을 체득해 왔다.

바다가 가르친 상상력

산동네는 부산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서정이다. 지붕과 옥상 물탱크들이 첩첩한 산복도로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면 또 다른 부산이 보인다. 한국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도시는 커졌고, 가난한 사람들은 판잣집을 짓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다.

나는 영도 산동네에서 바라보던 밤바다를 잊을 수 없다. 그곳에서 태어난 나는 금간 유리창으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며 자랐다. 어느 날, 밤바다에 거대한 배가 정박해 있었다. 그 배가 밤바다에 흘러 놓은 불빛들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은실 금실을 마구 풀어놓은 것 같았다. 어느 날 그 배는 떠났고, 그 옆에 새로운 배가 들어와 있었다. 나는 세상의 깊이와 넓이를 그렇게 배웠다. 내가 시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배낭 여행족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닌 것도 바다가 가르친 상상력 덕분이다.

가난한 산비탈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늘 아득했고 깊었다. 곡진한 삶을 끌고 가는 산동네에서 바라볼 때 바다는 열고 나가야 할 하나의 문과 같다. 부산에서 바다는 무수한 문으로 작동한다. 그 푸른 문은 언제든 어딘가로 열려 있다. 사람들은 그 문을 통해 삶을 열고 나가고, 꿈을 열고 나간다.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부산 남쪽 해안에 인접한 영도는 면적이 14.15km² 인 작은 섬으로 한국전쟁 당시 전국에서 모여든 피난민들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살던 곳이다. 2011년 빈집과 폐가들을 고치고 새로 단장한 흰여울마을이 일반에 알려지면서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졌다. 경사진 측대 아래 3km 남짓한 해안 산책로에서는 바다 너머로 일본 대마도가 보인다. © 부산광역시(촬영 권기학)

역동적인 문화 도시

부산에서 바다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가서서 열어야 하는 창조적인 문이다. 이 푸른 문이 열어 주는 바다의 정취 속에서 역동적인 축제들이 펼쳐진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해 부산비엔날레, 바다미술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국제연극제, 국제해양문학제 등, 이 중에는 해외에서 명성을 얻어 가고 행사들도 늘고 있다.

지역 축제도 다채롭다. 자갈치축제에서는 용신제와 물고기의 넋을 위로하는 물고기 위령제가 열려 바다를 삶의 기반으로 의지해 온 부산의 오랜 역사를 일깨워 준다. 해운대모래축제에는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모래 작품을 보여 준다. 불꽃축제는 매년 가을밤 광안리 앞바다를 환상적인 불꽃으로 수놓는다. 파도의 싱싱한 퍼득임을 보여 주는 멀치축제, 다섯 개 해수욕장에서 동시에 열리는 바다축제, 그 밖에도 수많은 축제들이 바다를 테마로 사시사철 낭만과 흥겨움을 이어간다.

그런가 하면 용두산공원에서 탄생한 비보이는 열정과 야성이라는 부산의 기질을 그대로 보여 준다. 부산 정신을 일구어낸 이런 기질들은 부산 문화를 민중적 힘으로 진화시켰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예술, 비평 문화 같은 다원적 비주류 문화 예술로 자리 잡으며 부산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우는 창조적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

오늘도 부산 바다는 운슬로 가득하다. 그 영롱한 반짝임들은 끊임없이 일렁이는 보이지 않는 파문들을 품으며 깊고 따뜻하고 강인한 목소리로 울리는 한편의 시(詩)가 된다.

김수우(Kim Soo-woo 金守愚) 시인
출처: <https://koreana.or.kr/>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егиона, конкурс «Великая Победа и история моей семьи» проводит Фонд Андрея Первозванного при участ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связи и акционерного общества «Марка».

Участие в нем могут принять ученики обычных школ,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или воскресных, а также воспитанники семейно-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Конкурс проводится по трем возрастным категориям: 6-9 лет, 9-14 лет, 14-18 лет.

До 17 апреля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card-2020@far.ru нужно прислать заявку и рисунок, который должен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жанрам почтовой миниатюры и полно раскрывать тему конкурса. С правилами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организаторов](#).

Финалистов в каждой возрастной группе определяет жюри. В его состав входя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руководство Фонда Андрея Первозванного, руководство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связи и АО «Марка», члены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 основе рисунков победителей будет выпущен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знак почтовой оплаты — маркированный конверт тиражом 100 000 экземпляров.

올해 사할린의 어머니들 170 여 명에게 직업교육

가정에 7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이 장래 취업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한 기금은 2020년에 도입한 <주민통계학> 기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블라디미르 푸친 대통령 주도 프로그램에 따라 연방 및 지방 예산에서 배당한다.

이 프로그램은 출산 휴가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을 도우며, 이 지원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업종 분야를 바꾸거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 기간에는 장학금이 지급되며 직업교육 이수 후에는 취업에 도움을 준다.

올해 이 프로그램으로 170여 명의 여성들에게 교육을 할 계획이다. 사할린 주민 여성 4명이 교육을 받았고 59명의 젊은 엄마들에게는 교육을 시작했고 17명은 자질 향상 과정에 들어갔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2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전공에 따라 교육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봐야 할 때는 편리에 따라 통신교육을 선택하고 있다. 우리는 각 여성들의 개별적 요구와 필요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사할린주 노동·고용청의 정보제공 및 직업교육과 직업지도국 웨라 페트로와 국장이 강조했다.

2019년-2024년간 계획된 국민기획 <주민통계학>은 5개 연방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전 지역을 위한 이 기획의 총예산은 3조1천억 루블리라고 사할린주 정부가 전했다.

Не менее 170 сахалинских мам пройдут обучение в этом году

Женщины, которые воспитывают детей младше 7

лет,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образование или повысить квалификацию с дальнейшим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Средства на это выделяются из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ов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ым программе, которая начала свою работу в 2020 году в рамках нацпроекта "Демография".

Программа призвана помочь женщинам, которые за время декретного отпуска лишились работы. Также на поддержку могут рассчитывать мамы, которые утратили квалификацию или по личным причинам желают сменить сферу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 время учебы выплачивается стипендия, а по окончании служба занятости оказывает помощь с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м.

Только за этот год планируется обучить не менее 170 женщин. Образование уже получили четыре жительницы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59 молодых мам приступили к учебе и еще 17 — поступили на курс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Сахалинки и курильчанки обучаются по 20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программам и специальностям.

— Большинство мам выбирают дистанционный режим, ведь это удобно, когда нужно заботиться о маленьких детях. Мы стараемся персонально подходить к нуждам и потребностям каждой женщины, — отметила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профориентаци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агентства по труду и занят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а Петрова.

Напомним, что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Демография",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2019-2024 годы, включает пять федер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Общий бюджет нацпроекта для вс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 3,1 триллиона рублей, сообщает областн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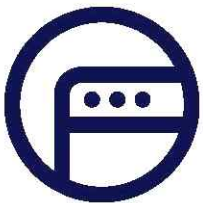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0-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